

## 교류협력 단계별 북한 직업훈련 실행 시나리오 구축 방안

# An Investigation of Supporting North Korea Vocational Training by Interchange and Cooperation Scenarios

김소영<sup>1</sup>, 이영민<sup>1</sup>, 이우영<sup>2\*</sup>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인력개발정책학과, <sup>2</sup>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So-young Kim<sup>1</sup>, Young-Min Lee<sup>1</sup>, Woo-Young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sup>2</sup>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unan 31253, Korea

###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교류 협력이 재개 되었을 경우 협력의 수준을 단계별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지역 내 직업훈련을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상황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과 사업 기반의 직업훈련 3가지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직업훈련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법인 The Futures Group의 미래 방법론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의류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대학 캠퍼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안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IT 생산, 통신, 중공업, 여성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에 다수의 직업훈련대학 캠퍼스를 설치하는 안이다.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북한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북한 직업훈련의 거버넌스를 설정해야 하며, 직업훈련 R&D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직업훈련분야의 HRD, H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upporting scenario to promote vocational training in North Korea in terms of cooperation level. To this end, we have embarked on a regional and industry base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by predicting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staging three scenarios systematically. These scenarios were designed originally based on the Futures Group methodology. The first scenario is to establish a technical training center in one area, focusing on the electrical, electronics, and clothing sectors. The second scenario is to set up a pilot campus of vocational training college in one region by selecting the electric, electronic, and automobile industries as its main industries. The third scenario is to establish five vocational training college campus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electricity and electronics, IT manufacturing, telecommunications, heavy industry, and women-specialized industries. We suggested the followings: First, establishing goals and strategies for North Korean vocational training and establishing road maps. Second, the North Korean vocational training governanc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hird, R & D infrastructure for vocational training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HRD and HRM system in North Korea

<http://dx.doi.org/10.14702/JPEE.2018.07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2 April 2018; Revised 16 May 2018

Accepted 18 May 2018

\*Corresponding Author

E-mail: wylee@koreatech.ac.kr

vocational training field needs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services centers to provide them should be strengthening.

**Key Words:** Vocational Training of North Korea, Vocational Training College, Vocational Training for Local and Industry, Scenario Planning, the Futures Group

## I. 서론

남북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 확보와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 제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1]. 급작스런 통일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의 전망과 기대효과를 상호 공유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발전하고, 점진적인 통합을 이룬다면, 분단을 통해 형성된 이질성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남과 북이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직업훈련은 남북경제협력의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동질성 회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 직업훈련은 북한 경제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자연스럽게 재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직업훈련에 관한 논의는 매우 포괄적, 간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기반한 노동시장 혼란과 대규모 실업 발생에 초점을 두고,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서[2],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남한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려던 시도[3] 정도까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폭과 깊이는 미비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직업훈련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과 남한의 직업훈련 체계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이행하기 위한 교류협력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북한의 주력산업과 향후 예측되는 주력산업에 기초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할 산업 및 업종을 선정하고, 직업훈련대학의 계열과 학과를 기준으로 북한의 산업과 업종에 투입할 직업 훈련 분야를 연계하며, 향후 예측되는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근거한 직업훈련 정책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구상하였다. 또한 북한 직업훈련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경제특구별 거점 직업훈

련대학 캠퍼스를 설립을 통해 북한 직업훈련을 보다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교류협력 단계별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셋째, 시나리오별 직업 훈련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II. 북한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의 개요

### A. 북한 경제 및 노동시장

북한의 경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6·28조치’로 명명되고 있는 경제 조치로 인해 기업관리, 산업부문, 노동부문 등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그 중 국영 기업소 분야의 활동을 살펴 보면, 생산비용 및 생산물의 판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계산하고 생산물의 시장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배급제를 이원화하여 국가 예산제 공장과 기업소의 국가기관 사무원, 교육분야 종사자, 의료부문 종사자는 배급제를 유지하며, 국가 예산제 공장과 기업소의 ‘생활필직장’ 및 독립채산제 기업은 전연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은 상점, 식당 등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며 개인 투자 기관은 개별적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3].

북한은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라 사적인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였고 노동력을 제공하여 부족한 배급을 채우고자 하는 노동의 공급도 증가하여 사적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두 번째 직업을 가지는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소속 기업의 이동을 통해 사적 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 노동의 의무가 없는 기혼여성 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는 공식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나 암묵적인 사적 노동시장이 존재하여 개인과 집단간 노동거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6].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대상으로, 각종 인프라를 부여하고, 조세 및 행정적인 특혜 등을 제공하며,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인 경제특구

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5,15].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관광특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등 5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5개 경제특구 이외에 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7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총 26개의 경제개발구를 개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개발구 5개, 공업개발구 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특구 4개, 수출가공구 3개, 첨단 기술개발구 1개, 국제녹색시범구 1개로 설치되어 있다[16].

## B. 북한 노동자의 특성

북한의 학제는 2012년 9월 개편되어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5년, 초등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3년 총 12년제 의무교육이다[16]. 그러나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수준 및 질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교육은 ‘의식화 교육’인데, 혁명에 필요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12]. 특히 기술교육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낙후된 훈련 설비 및 기술, 기술 지식을 갖춘 교원의 부족, 노동력 동원으로 인한 훈련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기능 습득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3,4]. 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한 노동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부가가치/취업자)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1인당 노동생산성이 2012년을 기준으로 북한은 270만 원이며 남한은 5,580만 원으로 북한은 남한의 1/21 수준이고 남한의 1980년 수준으로 나타났다[7]. 북한은 1인당 노동생산성이 1990년 160만원을 기록한 후 1990년대 정체 상태가 지속되어 오다가 2012년 270만원으로 지난 22년 간(1990~2012) 110만원 상승하였다[7].

## C. 북한의 직업훈련 현황

북한에서는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은 의무교육과 이후의 직업훈련에서도 지속된다. 북한의 직업훈련은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교육에 포함되어 생산실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직업훈련은 고등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마친 후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8]. 북한의 직업훈련은 정치사상교육 및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실용적인 내용이 적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면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성과와 수요를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9]. 북한의 직업훈련 기관으로 첫째,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있다. 이곳은 대학 졸업 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으로서, 설치장

소는 기업소, 농장, 어장 등이다.

둘째, 정규 학교가 아니지만 기업소, 광산, 공장 등지에서 입직 전 단계의 기술을 학습하는 기능공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제대군인, 기업소 노동자 등에게 전문기술을 교육한다. 셋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단일과정 기술을 가르쳐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기관인 양성소가 있다[10]. 북한의 직업훈련은 남한의 장소와 인프라 측면에서는 남한의 직업훈련 인프라 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인 집체훈련 형태보다는 현장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전문가 포럼 및 회의를 실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정치, 경제, 산업, 노동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고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의 자료와 아카이브, 그 외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였다. 둘째, 과거 개성공단의 북한 인력 직업훈련을 담당했던 교수 및 연구자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심층면담(FGI)을 통해 북한의 직업훈련 및 노동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북한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교수진 및 직업훈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직업훈련에 관한 인식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북한의 산업과 지역을 기반으로 국가직무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에 근거한 직업훈련 업종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북한의 직업훈련에 투입할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력의 직업훈련을 위한 과제 도출과 방안을 검토하였다.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인 The Futures Group의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the Futures Group's Methodology)을 채택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예측하여 부분통합, 전면교류, 완전통합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14]. 이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은 연구초점 명확화(define the focus), 거시적 동인 도출(chart the driving forces), 시나리오 작업(construct a scenario space) 순서를 바탕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특히, 시나리오는 직업훈련 인적·물적자원 선택과 집중 투입, 민관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용, 직업훈련 거버넌스 구축 및 효과적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적용하였다. 그 절차로 먼저 현재 북한의 주력 산업과 향후 예측되는 주력산업을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산업 및

업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는 과제 도출과 방안을 마련하였다[9,10].

#### IV. 주력 산업 분석 및 시나리오 설계

##### A. 북한 직업훈련을 위한 주력 산업 분석

북한에서 주력하고 있는 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공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섬유이고, 최근에는 화학섬유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자동차는 동구권 제품을 모방한 산업용 화물차를 양산하고 있고 평화자동차의 진출로 일부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산업이 부진하며 연료부족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조선은 산업침체로 인한 기간 산업투자에 미흡하여 생산능력이 약화되었고 낙후된 기술력으로 민간용 선박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기전자는 기술 낙후로 비효율적인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제협약에 의한 규제로 인해 기술도입이 미흡하고 내수시장이 부족하다. IT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주민통제를 위해 IT 산업의 보급을 기피하고 있지만 앱과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산업, 특히 해킹은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13].

북한의 향후 주력 산업은 북한 산업을 연구하는 기관들과 언론이 예측하는 주력 산업을 종합하였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현대경제연구원, 남한정책금융공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북한산업경제연구소가 제시한 산업과 북한 경제특구의 핵심 산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에서 표방한 산업을 연계시켜, 6개의 산업과 22개의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경공업 부문은 의류·신발, 섬유, 자동차이며 중공업 부문은 기계, 장비, 조선, 화학이고 IT 및 제조업 부문은 컴퓨터와 부속장치, 휴대폰과 부속장치, IT 기기이다. SOC·건설 부문은 도로, 철도, 시설, 전력, 상하수도, 철거, 배후도시 건설, 공업단지 조성이고 건설관련 서비스업은 인테리어, 요식, 숙박이며 정보통신 부문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선정되었다[12]. 결과 정리는 표 1과 같다.

##### B. 북한 직업훈련 시나리오

The Futures Group의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직업훈련 시나리오는 3가지로 상정하였다. 먼저, 연구초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에서는 막연히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실성 없는 상황을 가정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해 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얼마나 먼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떠한 변수를 의도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14, p. 14]을 통해 연구초점을 북한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으로, 거시적 동인들을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미시적 트렌드보다는 북한 인력 직업훈련 관련 연구나 실무업무를 수행했던 교수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자료들을 검토하여, 남북교류의 유형과 양태를 거시적 동인으로 설정하고 교류협력 단계별로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였다.

교류협력 단계들을 가정한 후, 3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가능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발생 가능한 북한 직업훈련 모습을 이미지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부분적인 남북교류 시기를 상정하여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남북한 간 인력, 장비, 물자 이동이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전개한다. 기술훈련센터 1개소를 설립을 목표로 하며, 설립 지역은 인구, 교통, 교육, 유통 등을 고려하여 평성, 개성, 신의주 중 한 곳을 선택한다. 주력 산업은 전기·전자, 의류 부문이 되며 기술훈련센터 운영 체계 수립, 모듈식 훈련 프로그램 구성, 기술 훈련 콘텐츠 제작, 훈련교사 풀을 마련하는 과제들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인력의 사회문화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체계를 수립하고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인력 대상 맞춤형 직종 개발, 특성화된 훈련과정 설계, 남한 내 북한인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북한의 공단, 주요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체계 및 과정 파일럿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위한 장소와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표 1. 북한 주력 산업과 예측

Table 1. North Korea's major industry and prospects

산업	내용	산업	내용
IT제조	컴퓨터 및 부속 장치	SOC · 건설	도로
	휴대폰 및 부속 장치		철도
	IT기기		시설
경공업	의류, 신발	SOC · 건설	전력
	섬유		상하수도
중공업	자동차	서비스업	철거
	기계		배후도시 건설
	장비		공업단지 조성
	조선		인테리어
	화학		음식
광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숙박
		정보통신	SW개발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장소, 장비 및 교재, 인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 상호교류 시기를 상정하여 독일 분단 시기의 동서독 교류와 비슷한 상황을 예측하여 전개한다. 이 시기에는 5. 24 조치 해제로 경협이 재개되는 것을 가정한다. 직업훈련대학의 시범 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하며 지역은 역시 인구, 교통, 교육, 유통 등을 고려하여 평성, 개성, 신의주 중 한 곳을 선택한다. 주력 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으로 하며 이 시기에는 남북한 직업훈련 인적·물적·사회적 자본 조사, 양성 및 향상 직업훈련 체계 수립, 자격과 기술 표준 이식방법 모색 등이 필요하다.

예컨대, 개성지역에 특화된 캠퍼스를 설립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후,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직업훈련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전무하다. 또한 과거에 설치된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이 가능한 인원이 수가 적고,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훈련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성 직업훈련대학 캠퍼스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시범학과를 운영하고 노하우를 축적한 후, 북한지역 직업훈련대학 시범캠퍼스에 접목시켜 운영할 수 있는 사례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북한 공단 기술교육센터 활용모델 → 직업훈련대학 개성캠퍼스 운영 → 북한 거점별 직업훈련대학 캠퍼스 설립 등).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 통합적 교류 시기를 상정하여 북한 인구의 남한지역 이동 억제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의 지역과 산업을 기반으로 직업훈련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시기의 목표는 북한 경제특구별(나진·선봉, 황금평·위화도, 개성, 신의주, 금강산) 거점 직업훈련캠퍼스를 설립·확산하는 것이다. 북한의 5대 거점도시별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직업훈련대학들을 설립한다. 북한은 해외 여러 국가의 기술 및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5개 경제특구와 21개 경제개발구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5개 경제특구에 입주기업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 일정 수준의 직업훈련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즉, 북한의 5개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 거점별 직업훈련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지역은 북한의 5개 경제특구일 것이다. 주력 산업은 전기·전자, IT 제조업, 정보통신, 중공업, 여성특화산업이다. 이 시기에는 산업별 숙련기술인 양성 및 육성, 거점지역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국제기구와 기술지원 공조 체계 마련, 남북한 동일의 기술표준 및 자격기준 수립 등이 요구된다[12]. 표 2는 시나리오별 직업훈련 전개 내용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교류협력 단계별로 북한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먼저 향후 북한이 주력할 산업 및 업종을 예측한 후 이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표 2. 북한 직업훈련 시나리오

Table 2. North Korea vocational training scenario

시나리오 1	<부분적 남북교류 시기> · 인력, 장비, 물자 이동 가능 · 비핵화 합의	(목표) 기술훈련센터 1개소 설립 (지역) 평성, 개성, 신의주 중 택일 (산업) 전기·전자, 의류 (역할) 기술훈련센터 운영 체계 수립, 모듈식 훈련 프로그램 구성, 기술 훈련 콘텐츠 제작, 훈련교사 풀 마련
시나리오 2	<남북 상호교류 시기> · 독일 통일 이전 동서독 교류 시기와 동일 상황	(목표) 북한 직업훈련대학 시범 캠퍼스 설립 (지역) 평성, 개성, 신의주 중 택일 (산업) 전기·전자, 자동차 (역할) 남북한 직업훈련 인적·물적·사회적 자본 조사, 양성·향상 훈련 체계 수립, 자격과 기술 표준 이식방법 모색
시나리오 3	<남북 통합적 교류 시기> · 북한 주민 인구의 급격히 증가와 이동 · 남북한지역의 북한 인력 직업훈련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목표) 거점별 5개 북한 직업훈련대학 설립 (지역) 북한 경제특구: 나진·선봉, 황금평·위화도, 개성, 신의주, 금강산 (산업) 전기·전자, IT 제조업, 정보통신, 중공업, 여성특화산업 (역할) 산업별 숙련기술인 양성 및 육성, 거점지역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국제기구와 기술지원 공조체계 마련, 남북한 동일의 기술표준 및 자격기준 수립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16].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전자, 의료 부문을 중심으로 1개 지역에 기술훈련센터를 수립하는 것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전자, 자동차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평성, 개성, 신의주 중 한 곳에 직업훈련대학의 시범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5개 경제 특구별 거점 직업훈련캠퍼스를 설립·확산하는 것으로 주력 산업은 전기·전자, IT 제조업, 정보통신, 중공업, 여성특화산업을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별로 과제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직업훈련을 위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둘째, 북한 직업훈련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직업훈련을 통해 북한 경제와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과 주체들을 관리 감독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을 위한 R&D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한의 직업훈련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신설하거나 추가할 사항을 검토하며,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 설계나 남북한 직업훈련 용어사전 제작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 직업훈련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직업훈련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원 양성, 관리, 배치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직업훈련 기관과 관계자가 상호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민간 고용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역과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동자 입장에서는 취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기업 측면에서는 역량을 갖춘 노동자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센터가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독일 통일 시기에 구 동독지역으로 고용센터와 인력이 다수 파견되어 양질의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준비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기초한 후속연구 기대한다. 아울러 통일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볼 때, 남한의 직업훈련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였을 경우 남북한 인적 역량의 차이가 심화로 인해, 훈련 재정 투입의 실패가 예측된다. 따라서, 남북통일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비한 북한관

공적원조형 직업훈련(ODA for TV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을 확대하며, 포괄적 경제 협력 전 단계로서 직업훈련을 통한 교류 증진 활성화를 위해 북한 직업훈련에 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여러 국내·외 북한관련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면밀한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Korean Employers Federation, *Reunification and Labor Market*. KEF, 2012.
- [2] M. J. Park, "Labor market policy and institution during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Deputy of Reunification, 2016.
- [3] J. H. Kim,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real condition and possibility of accep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support," in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pp. 47-80, 2014.
- [4] S. Lee, "North Korea's Labor Force and the Korean Economy," in J. S. Kim (Chair), *Unification Workforce Forum*, For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15.
- [5] Yonhap News Agency, *North Korea Handbook 2011*, Seoul, Yonhap News Agency, 2011.
- [6] D. H. Cho, "Assessment and utilization of the level of labor force in North Korea," *KDI Policy Study*, vol. 22, no. 1,2, pp. 285-357, 2000.
- [7] Hyundai Research Institute,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labor productiv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ekly Economic Review*, vol. 14, no. 42, pp. 1-12, 2014.
- [8] D. G. Lee, S. F. Lee, and G. H. Jung, *Vocational Training for North Korean Workers at the Reunified Korea*, Paju: Bubmunsu, 2008.
- [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North Korea Overview 2009*,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9.
- [10] I. G. Kang, "Discussion on the approach of North Korean social administration research through case study of HRD in North Korea,"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008, no. 4, pp. 847-864, 2008.

- [11] Y. M. Lee and S. Y. Kim, *Role of Vocational Training and Korea Polytechnic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Korea Polytechnics, 2015.
- [12] Y. M. Lee and S. Y. Kim, *Korea Polytechnics's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German Unification Benchmarking*, Korea Polytechnics, 2016.
- [13] Korea Finance Corporation Research Laboratory, *The North Korea Industry*, Korea Finance Corporation, 2010.
- [14] H. S. Choi, H. R. Kang, J. I. Jang, and S. Y. Um, *Future Scenario Planning Methodology*, Book Series,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ology Research Federation, 2005.
- [15] Hankyung Economic Daily Newspaper, *Economic Dictionary Search*.
- [16]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2016*, 2016.



**김 소 영 (So-Young Kim)**

198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경영학사)  
 1991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경제학과(경영학석사)  
 201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인력개발정책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4년 6월 ~ 현재 LHH-DBM Korea 이사  
 <관심분야>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전직지원서비스, 커리어 상담  
 <관심분야> 마케팅, 소비자경제, 역사, 문화인류학, 사회학



**이 영 민 (Young-Min Lee)\_**종신회원

1997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이학사)  
 1999년 3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문학석사)  
 2004년 12월 : 플로리다주립대 교육연구과(철학박사)  
 2007년 9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훈련, 고용서비스, 직업자격, 통일교육



**이 우 영 (Woo-Young Lee)\_**종신회원

1984년 2월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공학석사  
 1990년 8월 :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공학박사  
 1992년 9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2014년 10월 ~ 2017년 11월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관심분야>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정책, 인적자원개발, 정밀제조공정 및 제품설계